



고유정, ‘증거보전’ 추가 신청

오른손 이어 또다른 신체부위 상처 추정
“다툼 있었다” 증명해 정당방위 주장할 듯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고유정(36)이 자신의 오른손 외에 또 다른 신체 부위에도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확인된 신체 부위는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추정되고 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거보전은 재판을 앞두고 범정에 제시할 증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미리 법원이 증거 조사를 진행해 보존하는 절차다. 앞서 밝혀진 고씨의 증거보전 항목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발생한 ‘오른손 상처’다.

그러나 이 외에도 고씨는 또 다른 신체 부위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전해졌다.

신청 항목만 보면 고씨는 경찰이 밝힌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뒤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수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자신에게 이러한 상처가 났을지 없다는 논리를 펼쳐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문의가 고씨의 몸에 난 상처에 대한 감정을서를 법원

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감정을서를 채택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맡은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씨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을 하면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기소는 오는 28일 혹은 7월 1일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고씨는 감정 사유에 해당하는 심신미약 등은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소 시점에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피해자 강모(36)씨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씨가 시신을 2차 훼손한 장소로 추정되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 쓰레기 분류함 배관에서 빠로 추정되는 DNA 감정을 의뢰했다. 송은범기자



개장 앞둔 함덕해수욕장 20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제주의 초여름을 즐겼다. 한편 도내 일부 해수욕장은 이번 주말 개장한다.

휴양콘도미니엄 ‘위탁 운영’ 놓고 논란

수익형호텔처럼 분양… 관광진흥법상 명시규정 없어 피해 우려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이하 ‘휴양콘도’) 운영과 관련한 애매한 규정으로 휴양콘도도 위탁운영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가 버젓이 이뤄지며 소비자 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숙박업 업무편람에는 분양받은 휴양콘도 객실을 이용한 수익사업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돼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관광진흥법상 명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20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편람에는 ‘휴양콘도를 분양받은 공유제·회원제 회원이 동 객실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절대 가능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에는 휴양콘도의 위탁수익형 분양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처분 근거가 없어 분양과정에서 객실의 위탁 운영을 통한 수익배분이 가능한 분양호텔처럼 광고하는 관광사업자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제주도나 서귀포시의 휴양콘도의 수익형 분양

관련 질의에 문광부의 답변도 명확하지 않다. 2014년 10월 제주도 질의에 ‘수익형 분양은 불가’하다고 답했다가 2015년 1월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재회신했다. 그러면서 ‘공유자가 콘도 사업자로부터 수익을 배당받는 것은 공유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관할 등록관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문광부는 지난 4월 서귀포시의 휴양콘도의 위탁수익형 분양의 법 위반 여부 질의에도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면서 2015년 1월 제주도로 시달한 문서로 답했다고 전인 통보했다.

또 관광진흥법과 제주도관광진흥조례에는 휴양콘도의 주거용 분양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지역의 경우 객실당 5인 구좌 분양인 것을 도관광진흥조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포함된 콘도의 경우 2인 구좌 분양이 가능, 가족단 분양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주거용 분양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들어선 190실 규모의 휴양콘도 씨사이드아

덴을 분양받은 이들이 최근 ‘분양사기’라며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도 휴양콘도의 위탁수익 분양 금지와 관련된 것이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서귀포시는 지난달 29일 ‘임대차계약 형식이 아닌 공유자대표기구와 협의해 객실이 용 계획서를 수립해 객실을 운영하되, 객실 운영에 따른 수익은 시설운영 및 관리비에만 사용토록 해 ‘수익배분 금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주거형’ 홍보는 ‘주거용’으로 오인 소지가 있어 주거형의 의미에 대해 계약체결자에게 직접 해명 및 설명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통해 객실운영을 위탁하고 시설운영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7대 3 비율로 배분하고, 주거용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 분양받았다”며 “임대차운영계약서가 위법인데도 서귀포시는 시정명령만 내리면서 동시에 관광숙박업 허가를 내주고, 사업자는 이면계약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승용차 상가로 돌진

19일 오후 4시18분쯤 서귀포시 소재 상가 건물 입구로 QM3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이 사고로 운전자 A(67·여)씨가 경상을 입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주차하려고 후진을 한 뒤 앞으로 가려다 갑자기 차량 속력이 붙으면서 말을 듣지 않아 상가 안으로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상가에는 직원 1명만 있던 상황이라서 운전자 외에 다른 부상자는 없었다. 문미숙기자

데이트 폭력 40대 입건

서귀포경찰서는 20일 사귀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 통화했다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11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상가 앞에서 우연히 만난 연인 B(52)씨의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미숙기자

원 캠프 공보단장·대변인 집유 선고

지법 “문대림 골프 논평 선거영향 미쳐” 판결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경선 직후 명예회원으로 있는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현직 도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할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하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보관 강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언론비서관 고모(4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

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이들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는 논평을 배포했기 때문이다.

당시 강씨는 원희룡 캠프 공보단장, 고씨는 대변인을 맡고 있었고 원희룡 후보가 선거에 당선되자 민선 7기 제주도정에 개방형 공모직으로 임성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논평이 문 후보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끼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제주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37점 적발

제주시는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과 지난 3-5일 아라동, 이도2동, 일도1동 일대 상가 밀집 주변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주요 상점이 150여개

업체 중 19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가방, 의류, 신변장구(액세서리, 벨트, 신글라스 등) 등 37점의 물품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하고 향후 시정여부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현석기자

뇌물수수 혐의 前 공기업 지사장 구속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 지사장 M(57)씨를 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넨 건설업자 이모(53)씨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것을 빌미로 이씨에게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당 아파트의 실질적 건

축주다. 당시 M씨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제주에 대거 온다는 점을 내세워 관사로 이씨가 건축 중인 아파트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M씨에 대해선 보직을 해임했다. 송은범기자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 국제보청기 (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 실내체육관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시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제주도정 소식

세계제주인대회에 참가자 ‘해외거주 제주인’을 모집합니다.
접수 및 문의 : hdl915@korea.kr ☎ 064-710-6247

2019년 제3기 제주여성 펠리피 기본교육 수강생 모집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19. 7. 5. ~ 8. 23.
- 교육시간 : 매주 수, 금요일 14:00~17:00
- 교육장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교육대상 : 도내 거주 여성 40명
- 교육내용
○ 제주신화, 제주4·3, 미래제주 여성상, 여성인권 등 인문학적 소양
○ 문제해결능력, 발표력 및 리더십 마인드 향상 등 리더로서의 역량 개발
○ 주민자치, 정치 및 지역공동체 실태 등 여성의 사회참여 마인드 개선 등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9. 6. 18. ~ 7. 3.
- 모집대상 : 도내 거주 여성 40명
- 모집방법 : 홈페이지(http://swcenter.jeu.go.kr), 전화 또는 문자 접수
- 문의 및 접수처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과 ☎710-4202, 010-3712-4930)

제주 성음마을 성음무형문화재전수관 전통체험 교육수강생 모집 안내

모집기간 : 2019. 06. 19. (수) ~ 06. 27. (목)
○ 교육기간 : 2019. 07. 01. (월) ~ 08. 24. (토) (주 1회, 총 8차시)
○ 모집방법 : 인터넷 및 전화접수
- 인터넷접수 : www.jeu.go.kr/seongeup/index.htm (검색창 - 성음마을)
- 전화접수 : 제주 성음마을 성음무형문화재전수관☎064-710-6796
○ 교육과정 및 내용

과목	교육시간	모집인원	교육기간	수강료	강사
고소리술	매주 토요일 11:00~13:00	희망도민 12명 내외	총8차시 (주1회)	무료(재료비 자부담)	김희수 (고소리술 전수조교)
오메기술	매주 월요일 10:00~12:00	희망도민 12명 내외	총8차시 (주1회)	무료(재료비 자부담)	강경수 (오메기술 전수조교)
제주민요	매주 수요일 11:00~13:00	희망도민 12명 내외	총8차시 (주1회)	무료	강문희 (제주민요 전수조교)

※ 과정별 수강생 5명이하인 경우 취소
· 모집인원 선착순으로 선발 ·재료비 수강생 부담
·수강생은 강좌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상해에 대한 책임은 수강생 본인이 지함

서귀포시정 소식

2019년 제1기 청영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알림

○ 모집기간 : 2019. 6. 19(수) ~ 6. 28(금)
○ 모집인원 : 40명 내외(접수순)
○ 교육기간 : 2019. 7. 9(화) ~ 7. 12(금) / 13:00~18:00
○ 교육내용 : 사업계획서 요령과 활용, 창업우수사례, 부동산 실무계약 및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해, 청영시장동향 등
○ 문 의 처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760-2814

통통 튀는 아토틀레이 in 서귀포 6월 공연 알림

○ 공연일시 : 2019. 6. 28(금) 19:30
○ 공연장소 :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 공연명 : 클라리넷 연주자 여인호와 Schumann의 Love Story
○ 공연문의 : 서귀포예술의전당 ☎ 760-3365

제2회 서귀포 3분 관광 영화제 작품 전국 공모

○ 접수기간 : 2019. 4. 10 ~ 7. 19
○ 참여자격 :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일반부(대학생 및 일반인)/학생부(초·중·고) 구분
○ 공모주제
- 자유주제 : 서귀포의 관광·문화·역사 자원 모두를 소재로 함
- 마을문화 : 서귀포의 특색 있는 마을 문화 소개
○ 작품규격 : 3~7분 내외 / mp4 / Full HD 1920×1080 이상
- 극장 또는 온라인 매체에서 상영 할 수 있는 고품질이어야 함
○ 시상내역 : 대상 350만원, 금상(일반/학생) 각 200만원, 은상(일반/학생) 각 100만원, 특별상 50만원
○ 문의전화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760-2853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 참가자 모집 알림

○ 모집기간 : 7월 1일까지
○ 운영일시 : 2019. 7. 2(화) ~ 7. 11(목) / 화·목 10:00~12:00
- 7. 2(화), 7. 4(목), 7. 9(화), 7. 11(목)
○ 운영장소 :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실
○ 주요내용 : 부모·자녀 간 대화법 (반영적 경청, 나-전달법,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 등)
○ 문의사항 :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760-6483